

나를 돌아보는 계절



1년 사계절 중, 벌써 세 번째 계절을 맞이합니다.
푸르른 하늘, 떨어지는 낙엽들, 쌀쌀해지는 바람…
이런 이유 때문인지, 가을은 생각에 잠기기 좋은 것 같아요.
울기울에는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낯선 여행지로 가서 조용히 사색에 잠기거나,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책 속에 빠져도 좋을 것 같네요.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특권을 오롯이 나를 위해서만 누려보자고요!
<따뜻:한난>이 그 시간을 선물해 드릴게요.

따뜻:한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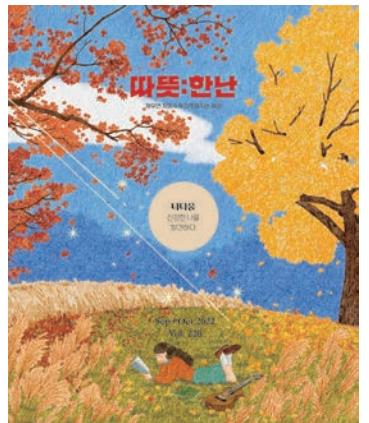
채우면 채울수록 따뜻해지는 세상

나다움
진정한 나를
발견하다

Sep+Oct 2022
Vol. 220



Contents



COVER STORY

형형색색 옷을 입은 산과 들이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날씨가 화창한 어느 가을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여행을 떠나보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고 싶은 걸
맘껏 하는 그런 여행이요.
낯선 곳에서 보낸 나만을 위한 시간이
당신의 가을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표지 일러스트 정아리

Section 따뜻한, 난

- | | | |
|-----------|----------------|-----------|
| 04 | 08 | 10 |
| 순간의 기록 | 마음 채움 | 생각한 난 |
| 나답게 산다는 것 | 비로소 나다움을 찾는 시간 | 나를 닮은 너 |

Section 대단한, 난

- | | | |
|------------|-------------------|-------------|
| 18 | 20 | 22 |
| 한난 통신 | 한난은 넷제로 | 온기를 만드는 사람들 |
| 2022 파크콘서트 | 연료전지로 수소경제를 선도하다! | 청렴TF |

Section 행복한, 우리

- | | | |
|----------------------|------------|---------------|
| 34 | 38 | 40 |
| 여기서 행복 | 듣는 서점 | 마음의 소리 |
| 강남지사 안전관리관 조영수 주임 가족 | 좋은 건 같이 봐요 | 눈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

- www.kdhc.co.kr
- www.youtube.com/c/kdhcmmedia
- blog.naver.com/kdhc2017
- www.facebook.com/FKDHC
- www.instagram.com/kdhc_on

발행일 2022년 10월 18일(통권220호)
등록 1993년 11월 30일
신고번호 성남, 마00027
발행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기획·디자인 경성문화사 02)786-2999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난
웹진 바로가기



04



14



34



38



46



48

따뜻:한난 vol. 220

2022년 9+10월호 이야기



22

- | | |
|----------------------|---------------------|
| 12 | 14 |
| 데이터랩 | 명사에게 묻다 |
| 여기서 난 나다움을 느낀다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윤홍균 원장 |

- | | | |
|-----------|----------------------|--------------------|
| 26 | 30 | 32 |
| 특집더 한난 | 에너지하는 지금 | 파소미와 ESG 하루 |
| 동탄역 | 여러분은 저탄소제품을 사용 중인가요? | 행복한 사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 |

- | | | | | | | |
|------------------------------|------------------|-------------------|-------------------------|-----------|-----------|---------------------------|
| 42 | 46 | 48 | 50 | 53 | 54 | 55 |
| 퇴근길 문화 | 가족의 식탁 | 놀면 뭐하니 | KDHC 뉴스 | 한난 SNS | 독자와 함께 | 한난 광고 |
| 골목길의 흥미로운 진화 전국 '리단길' 모음.zip | 매력만점 요리 팹이버섯 새우전 | 캘리그래피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 한국 ESG혁신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외 | 한난 SNS 뉴스 | 독자의견 | 한난, 세상을 녹색에너지를 채웁니다 |



나 답산 게다 는 것

Text 최선주 Photo 정우철



세상에 나온 지 30년은 더 넘은 MBTI가 유행하는 이유는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자
MBTI를 공유하며 놀이처럼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 밖에서 만나 부딪히게 되는 누군가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
이만한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에 대해 알아가기에 좋기도 하고요.

몇 해 전부터 MBTI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을 알아가기에 MBTI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MBTI가 뭐야?”라고 묻곤 했어요.
마치 예전의 “혈액형이 뭐야?”라고 묻는 것 처럼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이상하게도
이 MBTI에 의지가 된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반대로 불신하는 사람도 많지만요.

모두 공감이 되는 이유들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는 건 ‘나’에 대해 알아가기에 좋다는 것이었어요.
한 정신과 의사가 MBTI가 유행하는 이유에 대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점점 ‘나’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야 더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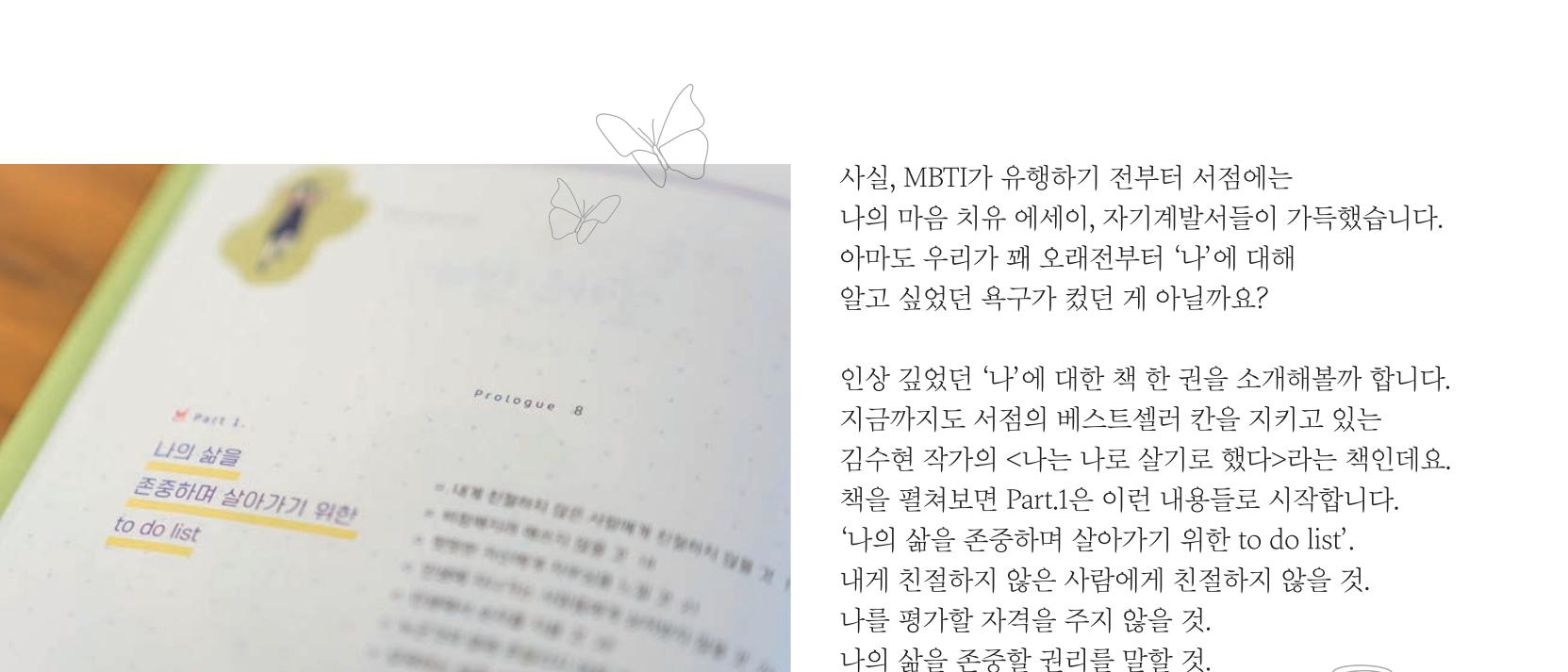
이 말에 문득 ‘그렇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나’보다는 ‘남’에 집중된 삶에 익숙해져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적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딸, 아들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애인으로, 누군가의 친구로,
누군가의 선배로, 누군가의 후배로….
나의 삶이지만 ‘내가 없는’ 삶이었죠.



혹여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남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고….
‘내가 없는 나의 삶’에서 ‘나’는 이렇게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런 과거를 돌아켜보면,
MBTI의 유행은 꽤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행이라는 좋은 평계로, 나를 돌아볼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고작 16가지 유형으로 나를 어떻게 단정하지?”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서점으로 가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MBTI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 서점 곳곳에는
‘나’를 돌아보기 좋은, ‘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MBTI가 유행하기 전부터 서점에는
나의 마음 치유 에세이, 자기계발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꽤 오래전부터 ‘나’에 대해
알고 싶었던 욕구가 컸던 게 아닐까요?

인상 깊었던 ‘나’에 대한 책 한 권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도 서점의 베스트셀러 칸을 지키고 있는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인데요.
책을 펼쳐보면 Part.1은 이런 내용들로 시작합니다.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to do list’.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나를 평가할 자격을 주지 않을 것.
나의 삶을 존중할 권리를 말할 것.



비가 와도, 해가 떠도, 먹구름이 껴도
하늘이 온전히 하늘인 것처럼 나를 둘러싼
어떠한 상황, 관계, 일들 그 무엇이 변하더라도
나는 온전히 나임을 알고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며 음악 감상을 해도 좋고요.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향기를 맡으며
명상을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온전한 나를 위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살기를 바라며
착하되, 결코 만만하지 않게
나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응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이며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나이고
내 삶이 행복해야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는 것
명심하자고요! ❤

마음 채움

타인의 아픔을 들으며,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순간

비로소 나다움을 찾는 시간

Text 정여울(작가) Illustr 다나

슬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맞이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었다. 나의 따스함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희희낙락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을 피하지 않고 그 슬픔을 겪는 이와 함께할 때 피어났다. 물론 슬픔을 끌어안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대체로 물러나고 싶어진다. 하지만 나는 이런 말에 약하다. “너밖에 없었어.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 “어디 말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선생님이라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 같아서요.” 그런 말에 나는 와르르 무너진다. 속수무책으로 무장해제된다.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어도 괜찮다.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무엇을 본 것일까. 그건 어쩌면 그냥 꾸밈없는 나다움이 아니었을까. 나는 나 자신의 고민도 어찌 해결하지 못할 때조차도 타인의 고민 앞에서는 무너져버린다. 그런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다. 나에게 뾰족한 수도 없으면서 무슨 남의 고민을 들어준다는 것인지.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묘수를 내어주지 못했는데도 빙긋이 웃으며 고맙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조릿속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그렇게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음’으로써 더욱 저마다 자신다워지는 것 같다.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야말로 ‘내 말을 들어주는 귀’가 필요하지 않은가.

“선생님, 저 고민이 있어요.”

평소에 공적인 일 이야기만 할 뿐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던 K가 어느 날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직장 상사가 자신의 실력을 견제하고, 사사건건 모든 일에 개입하려 해서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라는 이야기였다. K는 단정하고 모범적인 사람이고,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매우 드문 사람이기에, 나는 그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사회생활에서는 질투가 가장 무서운 적이다. 질투 때문에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주변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기도 한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찌 이리 사회생활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오후 내내 K의 이런저런 고민을 들어주었는데,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마다 다행히도 K의 얼굴이 밝아졌다. 비로소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아서 그 무겁던 마음이 조금씩 환해지는 것이었다. 나는 K를 따스하게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이건 K씨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예요. K씨가 실력도 뛰어나고, 인간관계도 좋고,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별로 안되는 걸요. 반대로 생각해 봐요. 능력도 없고, 인간관계도 안 좋고, 조직생활에 영 적응을 못해서 생긴 일이라면, 갈 길이 멀잖아요. 그런데 K씨는 그 모든 걸 잘 해내서 질투를 받고 있는 것이니, 이건 괜찮아요. 그 사람에게 더욱 더 잘 해줘요. 단, 억지로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잘 해줘요. 지금 K씨를 질투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사에게, 칭찬도 해주고, 좋은 말도 많이 해줘요. K씨가 그 상사에게 방해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도움이 될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럴 거잖아요. K씨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결국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큰 사람, 칙한 사람, 좋은 사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을 지켜야 해요. 자신을 지키는 일과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헷갈리면 안돼요. 그 상사가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할 때는 과감하게 거절하세요. 그게 K씨 자신을 지키는 길일 때는, 착해보이려 하지 말고 용감하게 옳은 길로 나아가세요.”

K의 얼굴은 밝아졌다.

“고민을 말할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서 너무 좋아요. 제가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멋지게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좋아요.”

신기한 순간이었다. 비로소 내 쓰임새를 찾은 기분이었다. 온 힘을 다해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의 아픔을 잡아들 때까지 그만히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비로소 ‘나다움’을 찾는 시간이었다.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에 숨은 아픔과 사연을 온몸으로 품어주어야 비로소 마음이 탁 트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

정여울

KBS 제1라디오 <정여울의 도서관> 진행자.
<나의 어린 왕자>,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저자. 가장 사랑하는 것은 글쓰기,
가장 어려워하는 것도 글쓰기, 그러나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것도 글쓰기인 행복한 글쟁이.
나를 키운 팔 할은 ‘책과 결별하면 사랑에 빠지는 심장’과 ‘성취보다는 좌절에서 오히려 의미를 찾는 습관’이다. 매일 상처받지만, 상처야말로 최고의 스승임을 믿는다.

생각난

나를
닮은 너

“자기소개해 주세요.” 살면서 이 말을 들어본 적이 분명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나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소개하는 게 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럴 때면 어떤 물건에 빗대어 나를 소개해 보세요.
나와 닮은, 나 같은, 나였으면 하는 그 어떤 것에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럼 조금 쉬울 거예요. 풍요로운 가을날, <따뜻한난>이
독자 여러분에게 나와 닮은 사물에 대해 물었습니다.

독자들이 이야기하는 나를 닮은 그 어떤 것,
혹은 닮고 싶은 어떤 것에 대해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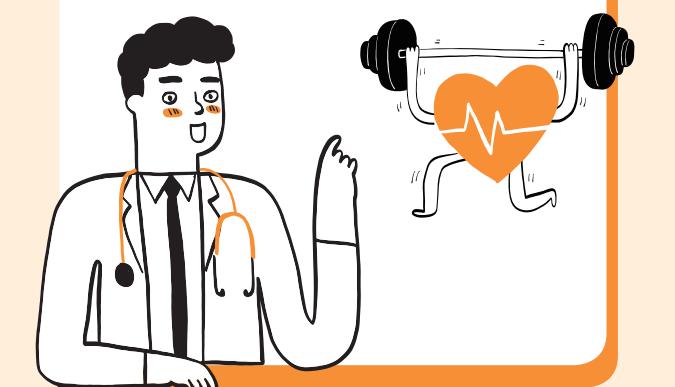
Text 편집실

11+12월호 테마 | 뜨거움 🔥

“내 열정이 뜨겁게 불타올랐던 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돌아보면 언제 이랬나 싶을 정도로 열정이 뜨겁게 불타올랐던
경험에 있었을 겁니다. 내 열정이 뜨겁게 불타올랐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따뜻한난> 웹진을 통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기간 2022년 11월 11일(금)까지



겉은 물렁하고,
내면은 단단한 의사가 되어야지요!

독자 김기한 님

복승아 취향 다들 있으시죠? 보통 딱딱한 복승아(딱복)와 물렁한 복승아(물복)로 나뉘잖아요. 개인적으로 딱복이 취향이지만, 저를 닮은 건 물복인 것 같아요. 저의 직업은 의사인데,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외과 의사입니다. 직업 특성상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이 긴장하고 힘들어하는 걸 자주 겪곤 해요. 환자들에게 물복처럼 물렁물렁 부드러운 말로, 안정시켜주는 게 저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들이 마음에 안정을 찾더라고요. 반면에 물복 안에는 딱딱한 씨가 있습니다. 그 딱딱한 씨는 외과 의사인 저를 특히 닮았어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술받은 환자들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의사는 물복의 씨앗처럼 내면이 단단해야 하는 것 같아요. 딱복처럼 걸까지 딱딱할 필요는 없지만요.

앞으로도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위해 물복 같은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겉은 물렁하게, 내면은 단단하게 치료에 전념하는 의사의 본분을 다하면서요.

가끔은
돌멩이 같은 삶을 꿈꾸요

독자 박지현 님

닮았다는 제가 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가끔 돌멩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가만히 그 자리에서 굴러가는 정도로만 지내고 싶거든요. 고등학교 때 뒤늦게 뷰티 관련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엄마를 좀라 비싼 학원을 등록했어요. 대학도 관련 학과로 나왔죠. 하지만 졸업하고 나니 생각처럼 취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저런 알바를 하다가 다행히도 백화점에 취직해 일 년 정도를 일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백화점에서 제가 일하던 매장이 영업을 종료해 다시 백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지금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막 힘들게 살아온 건 아니지만, 이런 부침을 겪어서인지 가끔은 아주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돌멩이처럼요.

저는 테이블 같은
사람입니다

화성지사 운영부 백관수 주임

저는 제 자신을 ‘테이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서로 의견을 나누잖아요. 테이블처럼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또한 테이블은 필요에 따라 진열되었다가, 식탁이 되었다가, 공부를 하는 책상이 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어진 상황에 맞게 융화되는 모습이 저와 같아요. 저 역시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하며 조화를 이루거든요.

이런 이유들로 저를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테이블에 빗대어 봤습니다.
테이블처럼만 살려고요! 하하.



로봇 같지만
다 안전을 위해서랍니다!!

양산지사 안전관리관 서정대 팀장

저는 가끔 지능형 자동로봇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정해진 시간에 따라 움직이고 규칙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출근하면 항상 같은 시간에 현장 안전점검, 지적사항 밴드 등록, 안전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 업무를 합니다. 현장 점검 시 안전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전지도와 조언을 하고요. 안전 규칙에 어긋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규칙에 맞추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공정안전보고서, 위기대응 매뉴얼을 항상 수정합니다. 직장동료에게 안전지침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고요. 지능형 자동로봇 같지만, 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것 아시죠?! ❤️



여기서 난 느낀다★

우리는 하루에도 다양한 장소를 갑니다.
집, 회사, 식당….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방문한 장소는 나만의 하루 루틴이
담겨있기도 해요. 그중에는 원해서
가는 곳도 있고,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곳도 있겠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갔던 다양한 장소들 중,
어느 곳에서 나다움을 느끼는지요.
그 어떤 방해도 없이 가면을 벗어던지고
나의 모습 그대로 있어도
마음 편해지는 장소, 그곳은 어디인가요?

Text 최선주

Data 한국지역난방공사 웹진 <따뜻·한난> 설문 답변



나만의 안식처 집

압도적으로 집이 1위를 차지했다. 한 주부 독자는 “제가 집순이인데요. 집 안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다 보니 가장 나다운 모습이 나오더라고요”라며 답변을 해주었다. 이 말에 공감이 간다. 어색하고 불편한 공간에 있으면 우리는 흔히 “아,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집이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은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것 같다. 재미있는 답변도 소개한다. 어느 독자는 나다움을 느끼는 장소에 대해 ‘집’ 중에서도 ‘내 방’이라고 말했다. 본인만의 취향과 개성이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가족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정말 내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듣고 나니 명답이다.



프로답게 일하는 곳 회사

의외의 답변이다. 회사에서 가장 나다움을 느낀다니?! 이 답변에 놀라워하는 사람도 꽤 될 것이다. 하지만 이유를 알면 납득이 간다. 어떤 독자는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준단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차게 일을 추진하는 모습이 가장 본인답고 좋아요!” 생각해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주변인들에게 대하는 나의 모습이 나의 본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인상 깊은 답변도 있었다. “회사가 아닌 공간에서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 회사에서는 일할 때 냉철한 편이거든요. 동료들이 냉철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것 또한 저다운 모습이겠죠?” 부정하지 말자. 회사라는 공간에서 그만큼 프로다운 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쉼을 선사하다 여행지

‘나다움을 느끼는 공간은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행지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단 여행지는 내가 늘 다니던 곳이 아닌 낯선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나다움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서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여행지라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한 독자의 답변이 기억에 남는다. “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힐링 받을 때 가장 편안한 나의 모습이 나와요.” 그렇다. 여행지란 나다운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자유로움과 쉼을 느끼며 나를 돌아보는 곳이기도 한 것 같다. 바쁘게 사느라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일단 여행을 떠나보자. 생각들이 정리되고, 삶의 방향성이 잡힐 테니까.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모임장소

아마도 이 답변을 한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조용한 장소보다는 사람들끼리 북적거리는 곳에서 나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부녀회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독자의 이야기를 소개해 볼까 한다. 이 독자는 부녀회 사람들과 함께 도시락 배달, 마스크 스트랩 나눔, 동네 청소, 어르신 말벗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고. 가끔 고되기도 하지만 어릴 적 할머니께 사랑받던 나의 모습이 생각나 즐겁단다. 이렇게 모임을 통해 긍정적으로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니 벌써부터 연말이 기대된다. 특별한 곳도 있었다. 바로 술자리. 술을 좋아하기보다는 직업 특성상 술자리를 가질 일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 ‘이곳이 내 인생의 시험무대이구나.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즐기다 가는 내가 되는 것도 중요하구나’라고 말이다.



여기서만큼은 재밌게! 취미를 즐기는 곳

4위 모임장소와 비슷한 유형의 답변이다. 한 독자의 사연을 예로 들어본다. 기타 동호회를 들었는데, 잘 치지는 못하지만 가식 없이 기타에 몰두할 때 음악 앞에서 순수한 열정을 가진 자신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이 독자처럼 잃어버렸던 나의 순수함을 느껴보고 싶다면, 동호회에서 무엇인가를 배워도 좋을 것 같다. 도서관도 같은 맥락이다. 퇴직 후 도서관을 자주 찾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내 안에 숨어있던 열정을 발견하게 된다고. 취미를 즐길 때 일에만 몰두했던 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 반갑다고 한다.



오롯이 나만 있는 곳 기타(차 안, 화장실)

누구나 가끔 혼자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화장실과 차 안을 딱한 독자들도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가끔 혼자인 시간이 필요하다면, 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스트레스를 풀어보자. 화장실로 가서 멍 때리는 시간도 좋다. 가끔은 혼자여야 다시 또 더불어 살아갈 힘을 얻을 테니 말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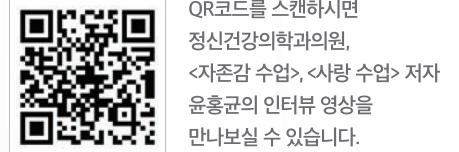
11+12월호 설문 주제

11+12월호 테마는 ‘뜨거움’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텐데요 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후회 없이 또 거운 사랑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대상을 말해주세요. 반려동물, 이웃, 연인, 가족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따뜻·한난> 웹진을 통해 설문에 참여하세요. 설문에 참여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기간 2022년 11월 11일(금)까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자존감 수업>, <사랑 수업> 저자
윤홍균의 인터뷰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게 살아간다는 건

원하는 삶에
가까이 간다는 것

윤 홍 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자존감 수업>, <사랑 수업> 저자

“혼기가 찼으면 결혼해야지”, “언제까지 춤만 추고 다닐래!”,
“돈을 모으고 살아야지, 투자는 해?”,
“다른 스타일로 입어보면 어때?”, “번듯한 직장이 필요하다니까”.
남들이 볼 때 나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일까?
정말 내가 틀린 걸까? 나는 왜 이럴까….
때때로 타인의 시선과 말에 상처받은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다 결국 자신을 사랑하지도, 나답게 살지도 못하게 되고야 만다.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 누구나 원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남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내가 나에게 해주세요.”
살면서 스스로 한심해 보이는 순간을 수없이 마주하게 될 때면
윤홍균 원장의 말을 떠올려보자.
나를 사랑하고, 나답게 살아간다면 보잘것없어 보이던
내 상황과 능력과 세상이 어쩌면 활하게 빛날지도 모를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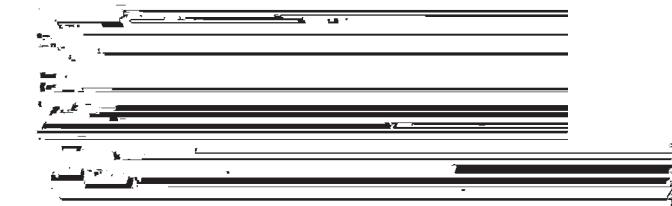
Text 박영화 Photo 정우철 Video 최의인

Q.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A. 물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지요. 고맙다는 말을 자주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건 찾아주시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원래 주 1회는 병원 문을 닫고, 강연을 하러 다녔는데, 최근 강연 의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여러 개로 늘릴 수는 없으니까 죄송하게도 일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하게 된 게 가장 큰 변화 같습니다. 제 일상은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가족들하고 아침밥 먹고, 지하철 이용해 출근하고, 병원에서 환자분들 뵙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운동하고, 책 좀 보다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밥 먹는 게 제 일상입니다.

Q. 베스트셀러인 <자존감 수업>의 ‘자존감’을 흔히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맞나요?

A.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쉽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자존감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Q.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A. 만약 자존감이 낮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 스스로에게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나란 인간은 쓸모 없어’, ‘나란 인간은 매력 없어’라고 생각하면 나 자신이 사랑스럽지도, 남들에게 자랑스럽지도 않겠죠. 반대로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다면 당연히 사랑하기도 쉽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좋아. 이렇게 살아보는 게 어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성격과 특징들을 캐치하고, 있는 그대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나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답게 살아야 행복해지고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Q. 때론 나답지 않은 감정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야 할까요?

A.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기억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답지 않은 감정이 나온다는 건, 나는 그런 거 없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나는 무기력 같은 것 없는 줄 알았어. 나는 창피함 같은 것 안 생길 줄 알았어” 했는데 나온 겁니다. 사실, 그럴리가 있나요? 나만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답지 않은 감정이 느껴졌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자신의 감정에 공감을 해줍시다.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준다면,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앞으로 또 이 감정이 느껴질 땐 어떻게 행동할까?’하면서 전략을 꾸미는 거지요.

Q. 자존감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늘 사건 사고의 연속이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얘기를 해줍니다. “잘했어”, “나니까 이정도 한 거야”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도 많아요. “아. 바보”, “난 왜 항상 이 모양이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박하고, 비난하고, 못살게 구는 겁니다. 그런 얘기 를 자주 들으면 자존감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비난이 제일 괴롭거든요. 엄마나 아빠, 배우자, 제일 친한 친구가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린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어”라고요. 60억 인구 중에 한 명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굳이 본인은

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나에게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만일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떨어진다면 “괜찮아, 열심히 노력했잖아. 힘들긴 하겠지만, 식사라도 맛있게 하자”라고 자기감정에 공감해주고, “어떻게 하면 힘이 좀 날까?”라고 자기 자신과 사이 좋게 힘을 합쳐보는 거지요. 우리의 뇌는 자기 목소리인지, 남의 목소리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많은 이야기 들려주세요.

Q. 나답지 못한 순간으로 인해 힘든 사람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성실하지 못할까요? 전 우울증이 아니라 게으른 것 같아요”라는 분들이에요. 한국에서는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한국의 여름은 적도보다 덥고요. 겨울은 시베리아보다 추워요. 옷하고 이불만 챙겨도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국민 총 생산량이 세계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워낙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뒤처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린 모두 상당히 성실하고, 뛰어난 능력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Q. <자존감 수업>에 이어 <사랑 수업>을 출간하신 계기와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 <자존감 수업>을 쓰고 한동안은 안도했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내용을 정리했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겠다’라는 치료의 틀이 생긴 거죠. 그런데 빈틈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잘 안되고, 어긋나고, 치료자와 관계도 잘 안 맺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자꾸 자존감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될까?’ 고민을 하다 찾은 답이 바로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자존감을 고쳐놔도 타인과의 사랑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됐다고 해서 혼자 외톨이로 사는 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사랑 문제를 결국 해결해야겠구나!’ 생각했지요. 두 번째는 아무리 자신을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룹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축하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형제간의 비교를 당



우린 모두 상당히 성실하고, 뛰어난 능력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Q. 한국지역난방공사 <따뜻·한난> 독자를 위해 나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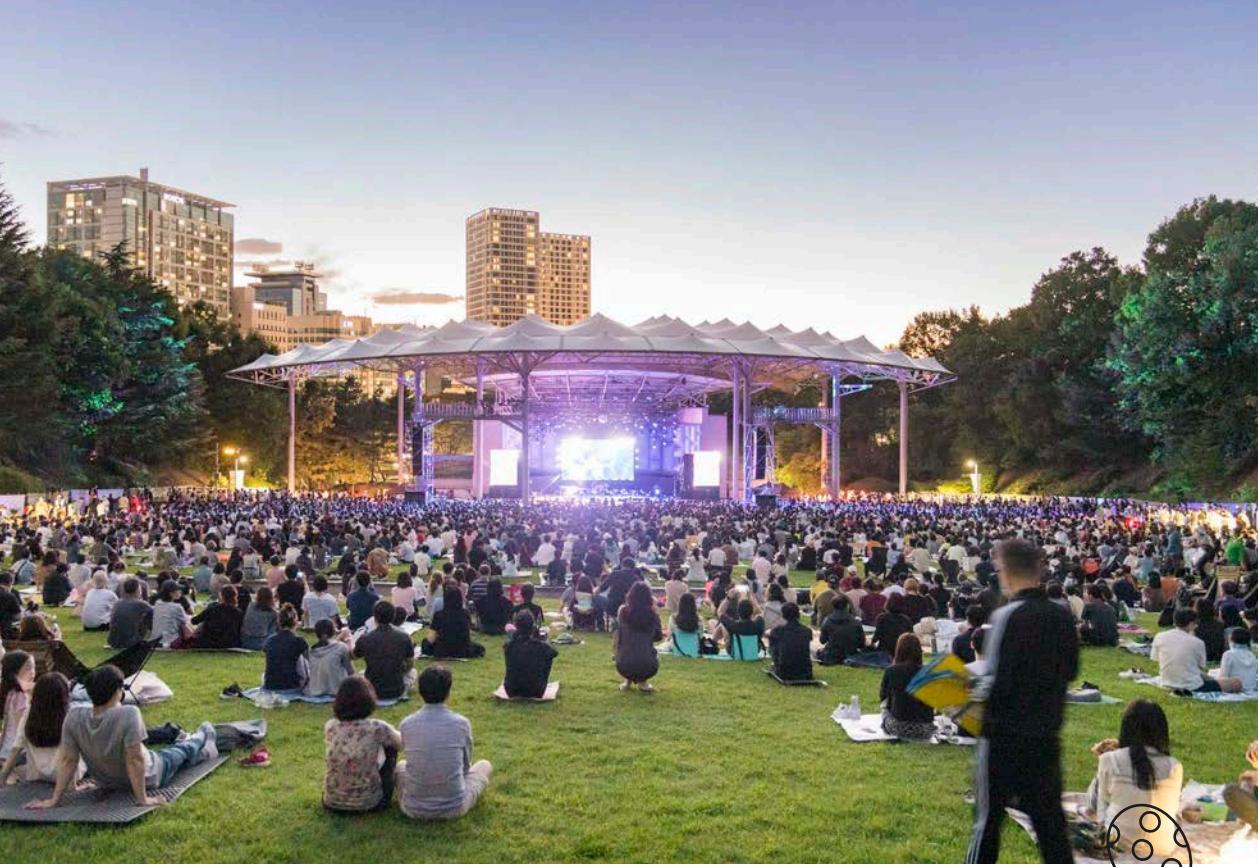
A.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세요. 나답게 살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하고, 자신을 좋아해야 합니다. 설령 단점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는지를 나의 내면과 사이좋게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답게 살 수 있고, 자존감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그게 가능할 때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기술도 생길 겁니다.❶

한난 통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성남문화재단이 함께하는 파크콘서트가 3년 만에 시민 곁으로 돌아왔다. 팬데믹으로 멈춰 섰던 이후 다시 열린 콘서트로, 지난 8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야외 음악회를 선보였다. 푸른 공원 한가운데에서 맑은 공기,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낭만적인 풍경을 담았다.

Text 김주희 Photo 정우철



☆ 낭만 가득한 야외 음악회 ☆ 숲 속의 밤을 수놓다

3년 만에 만나는 다채로운 무대

도심 속, 녹음으로 둘러싸인 분당중앙공원.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낸다. 잔디에 뜻자리를 깔고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와 자녀가 손을 꼭 잡은 채 들어서는 가족들도 눈에 띈다. 야외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설레는 표정이다. 때마침 불어오는 기분 좋은 미풍에 미소가 지어진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2022 파크콘서트’가 열린 현장의 풍경이다.

파크콘서트는 자연과 음악, 관객이 어우러지는 무료 콘서트다. 클래식, 대중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성남시 대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2년부터 성남문화재단 주관 공연을 후원하며 지역사회 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이 지역 안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 고객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2022 파크콘서트는 무더위가 점차 사그라든 8월 20일부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10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열렸다. 총 7회에 걸쳐 펼쳐진 공연은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다. 감성 밴드 잔나비를 시작으로 정재형과 김창완밴드,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 퀸텟&알리, 그리고 가수 선우정아가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정훈희와 최백호, 박주원에 이어서 고상지 트리오, 마더바이브와 가수 지소울 그리고 노리플라이와



기나긴 팬데믹의 끝에서 만난 2022 파크콘서트. 힘든 시간을 지나온 우리 모두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무대가 되었다.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이름도 더욱 빛난 시간으로 남았다.

Mini Interview

성남문화재단 융합콘텐츠기획팀 이주연 사원

“3년 만에 열린 콘서트라서 시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이번 파크콘서트에는 재즈와 클래식 등 느긋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장르도 선보였는데요. 그동안 밖에서 즐길 문화 콘텐츠가 부족했는데, 이제는 멀리 가지 않아도 음악회를 관람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성남 시민 최현정&정태일 가족

“2019년에도 파크콘서트를 관람했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찾게 되어서 기쁩니다. 팬데믹으로 아이들과 야외 활동하기가 조심스러웠는데, 피크닉 온 기분으로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교외로 가지 않아도 특별한 가족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 라인업도 만족스러웠어요. 내년 파크콘서트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란에 이어 마지막 무대는 자우림과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재즈밴드 JSFA가 꾸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열리지 않았던 콘서트인만큼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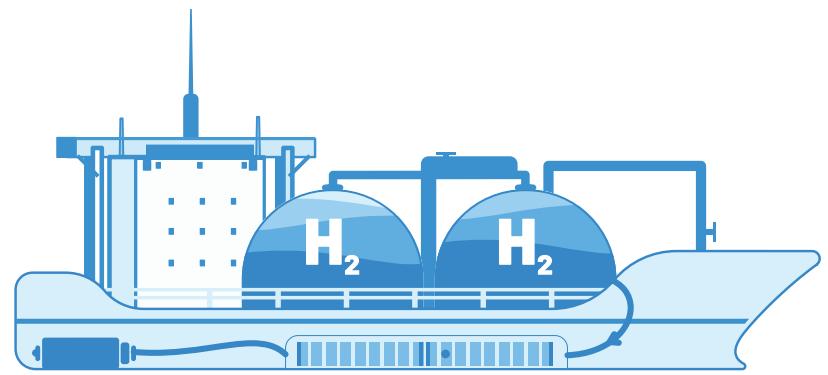
모두 ‘함께’한 열창의 무대

지난 8월 27일, 뮤지션 정재형과 김창완밴드의 공연이 열리던 날. 시민들이 분당 중앙공원의 야외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정재형은 성남 시민을 위해 공연의 시작을 피아노 선율에 담아 <오솔길>을 연주해 큰 호응을 얻었다. 뒤이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 안의 작은 숲> 등 잔잔한 연주곡으로 낭만적인 감성을 선사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의 클래식 선율이 어우러진 음악이 마음을 어루만지며 위로로 다가왔다. 히트 곡 <순정마초>와 앙코르 곡 <Running> 등을 열창할 때는 관객석이 한껏 달아올랐다. 특히 관객들을 코러스로 참여시키며 ‘함께’ 하는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등장한 김창완밴드는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1970년대 히트곡부터 최신 곡까지 다양한 노래를 들려줬다.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로 무대의 문을 열고, 전 세대에게 익숙한 멜로디 <너의 의미>를 열창하자 관객들은 ‘떼창’으로 화답했다. 일제히 휴대폰 불빛을 비춘 장면이 장관을 이루기도. 또한 <산 할아버지>,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등으로 관객의 눈과 귀를 단번에 사로잡았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SNS 인증 사진 이벤트 ‘2022 파크콘서트 참여 챌린지’를 진행해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기나긴 팬데믹의 끝에서 만난 2022 파크콘서트. 힘든 시간을 지나온 우리 모두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무대가 되었다.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이름도 더욱 빛난 시간으로 남았다. ❤

동탄연료전지&연료전지 기술교류회

연료전지로 수소경제를 선도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탄지사 연료전지 시설과 지난 8월 개최된 연료전지 기술교류회 현장을 소개한다.

Text 편집실 Data 한국지역난방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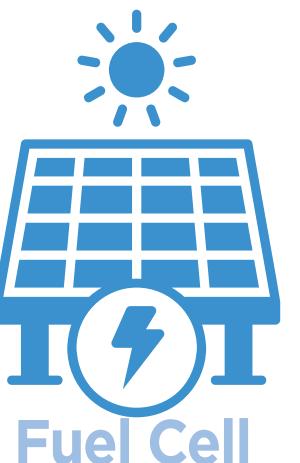
한난 연료전지의 핵심, 동탄지사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수소가 떠오르는 만큼 연료전지는 수소경제의 한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에너지변환 과정이 단순해 기존 방식에 비해 설비 노후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유지 관리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한난은 발전량의 일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발전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2월, 동탄지사에 연료전지발전소를 준공하기에 이른다.

동탄지사에 운영 중인 연료전지는 PAFC* 타입으로 열생산 효율이 매우 높고 전기도 함께 생산하는 친환경 열원시설이다.

*PAFC 인산형 연료전지. 보통 건물용, 발전용으로 쓰인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지름길, 연료전지

물에 전기를 가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리된다.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법.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는 원리를 역이용해 연료 연소 과정 없이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연료전지다. 빠르게 탄소중립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연료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난을 비롯한 국내 내로라하는 발전공기업 및 발전 사업자들은 이를 일찍이 인식하고 연료전지 기술에 대해 주목했다. 그러던 중에 동일 타입(PAFC)시설을 보유한 국내 연료전지 사업자들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내 최초로 기술교류회를 기획했다.

먼저 연료전지 주요 설비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고효율의 발전용 연료전지 개발 기업인 두산퓨얼셀에 연료전지 운영 현황에 따른 주요 설비 교체 및 점검 대책을 요청한 것이다. 그 후, '핵심부품 수급 대응을 통한 연료전지 발전출력 최적 향상 방안을 보고하고, 제작사 기술교육 참석 및 타사 사용자들과 연락망 구축, 운영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연료전지 기술교류회 참석을 제안했다.

기술교류회로 수소경제의 밑그림을 그리다

이러한 한난의 노력으로 지난 8월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와 연료전지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료전지 사업자와 함께 연료전지 기술교류회가 열렸다.

수소를 활용하는 연료전지는,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며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연료전지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연료전지를 운영하는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연료전지 기술교류회를 추진한 것이다.

한난을 비롯한 연료전지 운영 5개 발전 자회사(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와 2개 민간사업자(파주에너지서비스,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총 8개 회사가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종호 박사의 '연료전지 기술, 시장 및 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져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참석한 사업자 간 연료전지 유지 관리 및 보수 사례 등을 공유하며 기술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

한난 연료전지의 핵심
동탄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동탄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하며 타 발전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2020년도 발전지원사업 기술혁신 분야 '동탄 연료전지 프로젝트'는 열원 부지활용 극대화(복층구조), 조기 상업운전 시행(REC 조기 확보, 2018년도 의무공급량 대비 6.6%)으로 발전산업 계 최고 권위 상인 'Asian Power Awards' 상을 수상했다.

연료전지 사업개요



| 시설명 | 동탄지사 연료전지 발전설비 |
|-------|---|
| 사업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166 동탄지사 내 |
| 사업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국가에너지 정책 이행 •환경개선 및 국민 생활 편의 증진 •국민 삶의 질 향상 |
| 설비 현황 | <p>설비구성 : 총 26기(A동 13기, B동 13기) 단위기기 용량 : 440kW + 0.33Gcal/h 전체설비 용량 : 11.44MW + 8.8Gcal/h</p> |

‘올곧음’을 실현하는 열정 공동체

청렴TF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문구다. 청렴은 기업을 지탱하는 근간이자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청렴TF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 반부패를 목표로 나아가는 ‘청렴 라인업’을 만나본다.

Text 김주희 Photo 정우철



청렴 혁신에 앞장서다

청렴TF의 업무 목표는 명료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전담하는 부로 모든 임직원의 청렴도 향상을 이정표로 삼고 나아간다. 진종용 부장은 청렴한 문화가 한난 조직 곳곳에 스며들도록 다양한 업무를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청렴TF는 2021년 3월 신설된 조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조사에 대응하는 것을 비롯해 공사 내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기획하고 시행합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주관하기도 하고요. 부패 행위, 갑질 등의 공직기강 감찰 업무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왼쪽부터 진종용 부장, 심동균 차장, 장나은 대리, 김성원 팀장, 고경민 차장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조직문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온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최재 현장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진종용 부장을 필두로 청렴도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김성원 팀장, 부패방지시책 및 청렴인증제 업무를 수행하는 심동균 차장과 장나은 대리 그리고 공직기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경민 차장이 하나의 목표 아래 역량을 집중한다.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해온 청렴TF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장나은 대리는 올해 초 발표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유의미한 성과로 손꼽았다.

“2020년도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은 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왔는데요. 2021년도에는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전년 대비 2등급 상승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임직원이 함께 공감하고 뜻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변화는 숫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조직과 임직원 사이에서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청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특히 예산 관련 업무 수행 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 또한 외부업체나 계약 상대자와 협업을 이어갈 때도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임하는 문화가 더욱 공고히 자리 잡는 등 한난 내부에 청렴 조직문화가 정착하는 중이다.

공감+경청,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문화

한 기업의 조직문화는 특정 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청렴TF는 전 임직원의 청렴인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김성원 팀장은 지난 2년간 진행한 ‘청렴간담회’를 통해 임직원의 생각과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잖아요. 전 지사를 순회하며 다양한 의

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어요. 지사마다 현장 특징이나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접근했습니다. 2021년에는 전 지사 일근직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에는 교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며 현장의 고충이나 개선 및 보완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렴TF는 임직원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적발하는 기조에서 칭찬하는 분위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뢰 기반의 건강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블루휘슬’ 제도를 만들었다. 블루휘슬 제도란, 부패행위 신고 제도인 ‘레드 휘슬’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청렴 활동을 잘 수행해온 모범 직원을 칭찬하는 제도다. ‘칭찬’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해진 참신한 운영 방식은 임직원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안내 및 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고경민 차장은 청렴TF 모든 업무의 핵심은 ‘함께’라고 힘주어 말한다.



“임직원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임직원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거나 시행할 때 임직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청렴TF의 가장 큰 목표는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으로 2022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공사를 더욱 청렴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리답게, 창의적으로 청렴지수 Up

청렴TF는 단기적인 업무 목표가 뚜렷한 조직인만큼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 이들이 일하는 방식은 ‘창의성’에 맞닿아 있다. 임직원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므로 청렴 정책이나 사업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녹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특정 형식이나 틀에 얹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들을 모으는데, 그때가 가장 청렴TF다운 면면이 발현되는 순간이다. 심동균 차장은 부 풍경을 미어캣에 빗대어 유쾌한 웃음을 자아냈다.

“한 가지 주제나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면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떡이며 내밀고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공유하곤 하지요. 그 모습이 흡사 미어캣 같달까요(웃음). 활기차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부장님 또한 모두가 수평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청렴은 멀리 있지 않다. 각자의 자리에서 잠깐의 망설임과 흔들림 없이 올곧게 나아간다면 저절로 청렴지수가 높아질 터. 청렴TF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공동체 의식으로 뜰뜰 뭉친 이들에게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청렴한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 진종용 부장의 각오가 더없이 믿음직하게 들리는 이유다.

“청렴TF의 가장 큰 목표는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으로 2022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비록 단기 목표로 구성된 조직으로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훗날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한난을 더욱 청렴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렴TF의 즐거운 한난 어워드

한난 어워드는 매호 <따뜻한난>에 소개된 부를 위해 마련된 작은 시상식입니다. 부 자체 설문을 통해 선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프로 맛집 탐색래 고경민 차장

업무 중간중간 동료들과
‘맛’을 나누세요! ‘간식 세트’



독서의 계절, 다독왕! 진종용 부장

옮기에도 탐독을 만끽하세요. ‘책’



부를 좋은 방향으로 장나은 대리

매일매일 기분 좋은 일상을 누리세요
‘디퓨저’



쾌적하고 안전한 동탄역을 이끄는 1+1 협력의 힘

SRT 동탄역(코레일테크) 기계팀&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역사는 쾌적한 환경이 요구된다. 수도권 남부 교통 중심지인 동탄역의
일일 이용객은 8,000여 명에 달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지하에 위치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코레일테크 기계팀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는 끈끈한 협력을 바탕으로 동탄역을 최상의 환경으로 이끄는 중이다.

Text 김주희 | Photo 정우철

THE POWER OF COOPERATION

| 동탄역 정보 | |
|-------------------------------|---------------------------------------|
| 열공급 개시 | 2016년 10월 |
| 사용량 2016.10.20.~2022.09.18 | 난방 1521.84 Gcal/h 냉방 2679.8 Gcal/h |
| 난방열교환기 | 450 Mcal/h 1기 |
| 흡수식냉동기 | 205 usRT 4기 |



경기 남부권 지역 핵심 교통망, 동탄역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한 동탄역은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 SRT 노선에 위치한 역사다. 2016년 오픈 당시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 고속철도 역사로 주목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하 심도가 무려 45m에 이른다. 지하 역사인 것을 감안해 스크린 도어 설치와 피난 시뮬레이션 시행 등 철저한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동탄역에는 SRT 외 다른 철도 노선과 서울을 오가는 다양한 버스 노선이 추가로 개통된다. 2023년에는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과 삼성역을 거쳐 동탄역까지 연결하는 GTX-A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처럼 동탄역은 경기권 최대 규모 복합환승센터와 경기 남부권 교통 허브로 기대를 받고 있다.

동탄역의 기계설비 유지·보수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테크 기계팀 박종만 팀장은 동탄역이 개통될 당시부터 최상의 역사 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난이 공급하는 지역 냉·난방을 이용하며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오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동탄역은 지하 6층~지상 1층 규모로 다른 역사에 비해 규모가 큰 편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신규 아파트 입주, 백화점 개점 등과 맞물려 이용객이 초창기와 비교해 세 배 정도 늘어났는데요. 많은 사람이 오가는 지하이다 보니 공기 질이나 기온, 습도 등 환경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이면 습도가 많이 높아지는데, 이때 지역 냉방을 이용해 습도를 조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있지요.”

박종만 팀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는 6년여의 세월을 함께하며 역사 내부 환경을 책임졌다. 그동안 민원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 냉·난방을 운영할 수 있었던 힘은 ‘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동탄지사 운영부 최경락 차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몫을 충실히 수행하는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더 바랄 게 없달까요.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와주는 동탄지사가 있어 든든합니다!

코레일테크 기계팀 박종만 팀장



왼쪽부터 동탄지사 운영부 최경락 차장, 코레일테크 기계팀 박종만 팀장, 동탄지사 운영부 정형대 주임, 김형진 주임

“무탈하게 흘러가는 것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박종만 팀장님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근무 일지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는 덕분에 그동안 별다른 이슈 없이 협업을 이어왔습니다. 이용객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 전에 점검 겸 냉방사업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했는데요.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균형과 호흡을 맞추며 업무를 이어갑니다.”

이름만으로도 든든한 파트너십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와 코레일테크 기계팀이 함께 공감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점검’이다. 마치 물과 공기처럼 냉·난방 또한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경계하고, 평소 현장을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동탄지사 운영부 김형진 주임은 “설비가 잘 관리되어야 좋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잖아요. 여러 사용자를 많이 만나보면 기계실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탄역 기계실에 올 때마다 놀라는데요.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에서 지역 냉·난방 설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며 코레일테크의 관리 역량을 추켜세웠다. 정형대 주임 또한 “1년에 2회 하절기, 동절기 점검을 진행합니다. 열량계 교체를 하거나 점검을 할 때면 코레일테크 기계팀 직원 분들이 협조적으로 임해주니 더욱 수월하게 업무를 할 수 있어요”라는 말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박종만 팀장은 동탄지사 운영부 직원들의 가장 큰 장점으로 신속성과 기동력을 손꼽았다. 문의 사항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답변을 주거나 현장을 방문해 주는 덕분에 늘 든든하다고 강조한다.

“단 한순간이라도 지역 냉·난방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많은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야 하므로 신속한 처리가 정말 중요하지요. 역사 운영 초기에 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다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냉동기 메인 밸브 작동 문제를 해결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빠르게 일을 처리해주니 ‘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 이름만으로도 절로 신뢰가 갑니다.”

박종만 팀장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에도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 일반발전보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이 오염물질 배출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한 한난의 친환경 행보에 신뢰를 보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와 코레일테크 기계팀은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역사 환경을 위해 협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진정한 협력은 ‘합’이 아니라 그 합을 뛰어넘는 시너지를 발휘하는 게 아닐까. 서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이들의 ‘1+1’은 더욱 굳건하게 빛을 발할 것이다. ●

지역 냉·난방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줘서 늘 감사한 마음이지요. 동탄역을 오가는 모든 사람이 불편한 사항을 겪지 않도록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동탄지사 운영부 최경락 차장



여러분은 저탄소제품을 사용 중인가요?

환경을 위한 착한 선택

요즘 마트에 가면 '탄소배출량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한 것인데, 이러한 제품들 중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되면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장바구니에 저탄소제품이 하나라도 들어 있다면, 당신은 환경을 보호하는 현명한 소비자임이 분명하다.

Text 임혜경 Referenc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2011년 도입된 저탄소제품 제도



저탄소제품에 대해 알기 전에 먼저 '환경성적표지' 제도부터 알아야 한다. 제품의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평가해 이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이러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원료, 연료 대체, 공정,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이전보다 탄소배출량을 감축했다면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1년 11월부터 저탄소제품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상품을 선택해 녹색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다. 저탄소제품의 인증은 '최대허용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률'이 기준이다. 즉,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한난, 국내 최초 열에너지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열에너지 제품군에 대한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았다. 그동안 한난이 추진한 '고효율 설비 운영', '사업장 간 열 연계를 통한 에너지 절감', '소각열을 포함한 외부 미활용열 이용' 등의 성과를 통해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번 인증은 용인을 비롯해 세종, 고양, 중랑, 동탄, 청주 등 한난의 6개 사업장에 부여되었으며, 동탄과 청주 2개 사업장은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 인증을 획득했다. 한난은 이번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으로 지역난방 사용자에게 탄소배출을 줄여 생산한 열을 공급함에 따라 고객의 녹색소비 요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ESG 문화를 선도해갈 계획이다.

지구를 생각한다면 저탄소제품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저탄소제품은 640 건이다.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누적 1,248만 톤 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했고, 이는 30년생 소나무 18억 9천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온실가스 양이자, 승용차 520만 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라고 한다. 일상 속에서도 저탄소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제주삼다수, 풀무원샘물, 강원평창수 등의 생수를 비롯해, 노브랜드 칫솔과 물티슈,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커피, 제주콩두부, 투게더 오리지널 바닐라, SK매직 공기청정기, (주)현대아이티 데스크톱 모니터 등이 있다. 이들 제품은 '생산공정 및 제품 사용 에너지효율 개선', '폐열회수 시스템 적용', '제품·포장재 경량화', '저탄소 원·부자재 사용 비중 확대' 등 생산과 소비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축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한다. 🌎



생수병

무라벨 제품 생산, 용기 경량화, 포장필름 사용량 감축



항공운송서비스

친환경 커피를 기내와 라운지에 제공, 탄소상쇄 프로그램 시행



바닥재, 벽지 제품

고성능 건축용 PF 단열재 제조 과정에 친환경 발포가스 사용



저탄소제품 인증 사례



신재생에너지의 일종인 RPF (페플라스틱 재활용 원료)로 생산한 스팀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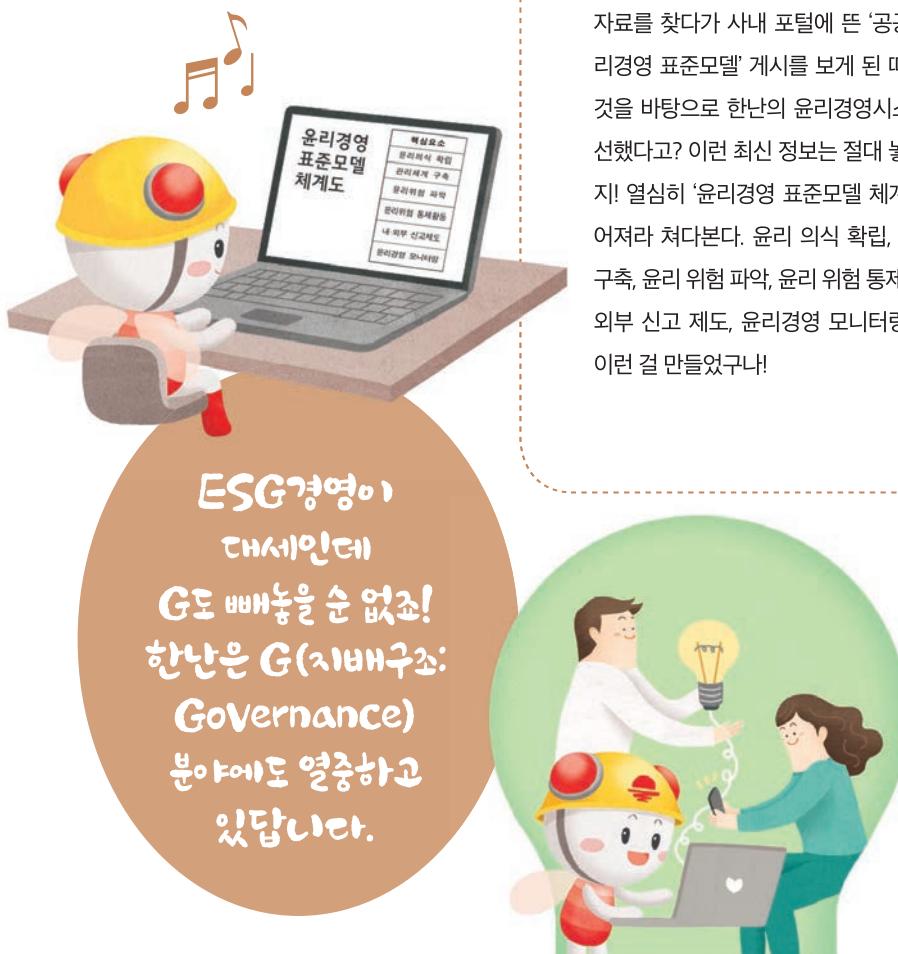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제품

레미콘 제품 가운데 3개 규격 ('25-24-150', '25-27-150', '25-30-150')에 대해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

행복한 사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한난이 두 팔 걷어붙였다.
따소미 역시, 한난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는데…!
행복한 사회 지킴이, 따소미의 하루를 담았다.

Text 최선주 Illustr 정재경



03:30 PM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익혀요!

자료를 찾다가 사내 포털에 뜬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게시판을 보게 된 따소미. 이것을 바탕으로 한난의 윤리경영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이런 최신 정보는 절대 놓칠 수 없지! 열심히 '윤리경영 표준모델 체계도'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윤리 의식 확립, 관리체계 구축, 윤리 위험 파악, 윤리 위험 통제활동, 내·외부 신고 제도, 윤리경영 모니터링! 오후~ 이런 걸 만들었구나!

09:00 AM

ESG 관련 기사를 보면 출근~!

출근길에 오른 따소미. 버스 안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휴대전화로 최신 뉴스를 살펴보는 중이다. "오늘은 무슨 뉴스가 있을까~?" 하던 찰나에 눈에 띄는 뉴스를 발견했다. 바로, '30대 그룹 ESG 위원회, ESG 전략, G에 관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한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근 ESG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게 바라봤다. 디들 지배구조(G) 분야에 관심이 많구나! 역시~!

10:30 AM

한난에도 ESG위원회 있어요~

따소미는 기사를 보고, ESG 경영 및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한난의 대표주자로서, 따소미도 한난의 ESG위원회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를하여 한난 ESG위원회! "여러분~! 한난도, 기업의 ESG 정보공개 의무 증가 요구와, 주주친화적 기업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ESG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ESG위원회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GOVERNANCE TIP

한난의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소개합니다



추진 배경

기재부의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확정 ('21.12.13)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난 윤리경영시스템 제도 개선

추진 계획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22년도 윤리경영 추진 계획 수립 및 운영

윤리경영 표준모델 체계도

| 핵심요소 | 10대 추진원칙 |
|-----------|--|
| 윤리의식 확립 | ① 윤리의식 확립: 최고 경영진 주도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
| 관리체계 구축 | ② 관리체계 구축: 적절한 권한 위임과 감독 책임 강화 |
| 윤리위험 파악 | ③ 윤리위험 식별: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위험도를 계량화 ④ 환경변화 대응: 외부 변화에 민감, 리더십 변화에 안정 |
| 윤리위험 통제활동 | ⑤ 통제활동 수립: 윤리위험별로 적절한 대응방안 설계 ⑥ 통제절차 선택: 통제활동 선택과 주기적 유효성 평가 |
| 내·외부 신고제도 | ⑦ 내부 의사소통: 비밀이 보장된 내부고발제도 정비 ⑧ 외부 의사소통: 외부관계자에 의사소통채널 개방 |
| 윤리경영 모니터링 | ⑨ 윤리경영 모니터링: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 ⑩ 윤리경영 개선활동: 적시에 윤리경영상 문제점 개선 |

02:00 PM

해외기업의 사례를 보면 공부 중

우연히 자료를 찾다가 따소미는 인상 깊은 기사를 읽게 되었다. '정직한 경영'으로 시선을 끈 해외기업의 사례다. "덴마크 완구 제조업체 L사는 유아용 장난감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자, 손실을 감수하고 전 제품을 리콜하기도 했다." 따소미는 이 내용을 팀원들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이번 ESG 관련 발표 때 이 내용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11:30 AM

따소미, 사내 동호회 리더가 되다!

따소미는 사내 독서모임의 일원이다. 벌써 1년째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음 해 모임의 리더를 뽑기로 했다. 다수결에 따라 리더에 선정된 따소미. 따소미는 소감을 말한다. "현명한 리더십으로 1년 동안 모임 잘 이끌어 갈게요~!" 현명한 리더십이 조직을 올바르게 이끄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말이다.

청렴하게 소통해요!

04:30 PM

국민참여 예산제도 홍보 중!

사내에 포스터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포스터의 내용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고 한다. 한난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국민제안 및 심사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블로그를 참고하기를~!

05:00 PM

우리 같이 소통해요~! '윤리·청렴 간담회'

퇴근을 준비하는데 팀장님께서 윤리·청렴 간담회에 대해 이야기한다. 집중해서 들었다. "청렴활동 주관 간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청렴문화를 정착하는 거예요~! 다들 간담회 잊지마세요! 참, 업무 애로사항, 청렴도 개선을 위해 소통을 하고자 합니 부담 갖지 마시고요~!" 따소미는 이것을 듣고 생각했다. "역시 소통이 중요해~!"



바라온 행복이 지금, 여기

강남지사 안전관리관
조영수 주임 가족

손잡고 걷는 삼대(三代) 위로 가지런히
태양이 깃든다. 풍요의 바다에서 시인의
노래를 흥얼거린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떠올릴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 아닌가. 조영수 주임 가족이
태안 앞바다에서 길어 올린
오늘자 행복을 카메라에 담았다.

Text 윤진아 Photo 정우철



왼쪽부터 조영수 주임, 할머니 김갑임 씨, 어머니 이미향 씨, 할아버지 이철재 씨, 형 조영재 씨

느긋하게 행복이 부푼다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백사장 가득 보드라운 모래알들이 소란하게 반짝인다. 청포대 해수욕장 끄트머리에 앉아 달달한 바닷바람을 움켜쥐며 가을 소풍이 시작됐다. “어릴 땐 전국 방방곡곡 안 가 본 곳이 없을 정도로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서해에선 갯벌체험을 많이 했는데, 조개 캐는 게 보물찾기처럼 재미있었어요. 해질 때까지 조개를 한아름 잡아와 온 가족이 맛있게 요리해 먹었죠. 오늘 모처럼 옛 추억을 곱씹으며 실력을 발휘할 생각이에요. 내일 아침 메뉴는 조개탕으로 이미 정해놨습니다. 하하!” 눈부시게 자란 손자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할머니가 촬영 내내 박수까지 치며 “아이고, 이쁘다~” 감탄사를 쏟아낸다. 바다를 꼭 닮은 파란 재킷에 히늘색 모자로 멋을 낸 할머니 김갑임 씨는 “오늘 할머니가 제일 예쁘다”는 손자들의 칭찬에 손사래를 치면서도 “이쁘면 사진 많이 찍고, 이



다음에 나 죽은 다음에 두고두고 봐라~”라며 더 멋진 작품을 남기는 데 의욕을 보였다. 맞벌이하는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형제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당신들의 자식을 키우던 바쁜 시절엔 아마도 가능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애지중지 돌봐주셨던 늙진한 사랑을 이제는 절절히 느낄 수 있다. “할머니는 제가 아프면 약을 지어주시고, 친구가 괴롭히면 손잡고 찾아가 혼내주시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척척 해결해주셨죠. 가끔 할머니랑 집 앞 공원에 은행을 주우러 나갔는데, 고약한 냄새를 참으며 바구니 가득 담아왔던 기억이 나요. 천식에 좋다며 할머니가 노릇노릇 구워주신 은행은 정말 고소하고 맛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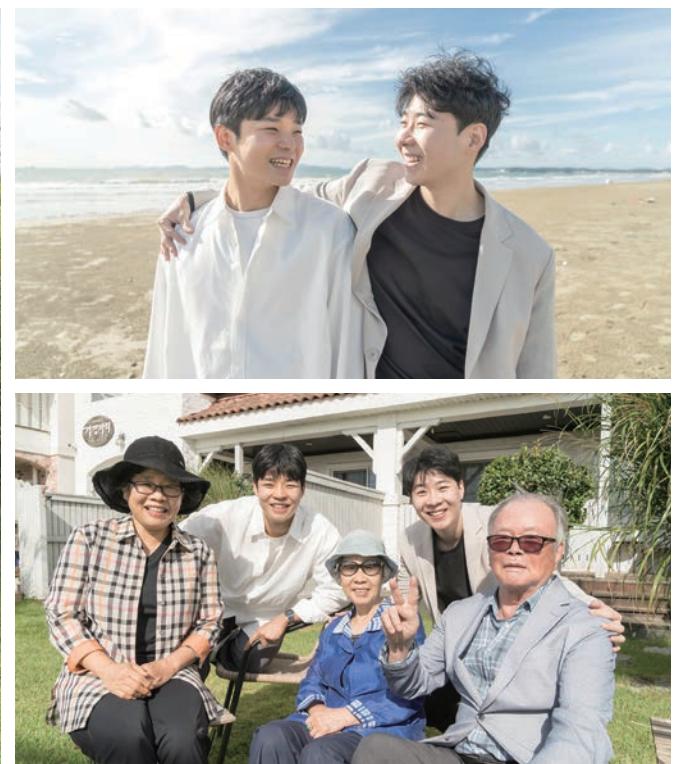
넉넉한 바다에 안기면

무뚝뚝한 표정으로 손주들의 원성을 받던 할아버지 이철재 씨가 할머니의 약진에 자극받았는지 기습 손하트를 날려 웃음꽃을 피워냈다. 6·25 참전용사였던 할아버지는 손자의 육군 훈련소 수료식 때 조영수 주임의 가슴에 직접 이등병 계급표를 달아주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오늘처럼 활짝 웃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흔을 훌쩍 넘은 연세에도 매일 아침 운동을 거르지 않으시는 할아버지는 늘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셨죠.”

움푹 팬 모래구덩이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조개껍데기에 속절없이 발을 베어도, 어린 날 걸음마를 일러주셨듯 담담하게 다시 균형 잡는 법을 알려주실 거라는 믿음. 백사장은 길이면서 쉼터도 된다. 다 큰 형제가 때 아닌 술래잡기로 질주의 쾌감을 만끽할 수도 있고, 틸썩 앉아 모래놀이의 추억을 되새길 수도 있다. 다섯 살 터울의 형 조영재 씨는 한국남동발전에서 일하고 있다. 여느 형제들이 그렇듯 성장기엔 같이 있으면 해도 티격태격 싸우던 ‘원수지간’이었지만, 사실 조영수 주임에게 형은 등대이자 거울 같은 존재라고 했다. “사춘기 때 형을 보러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간 적이 있어요. 압도적인 규모의 발전소 중앙제어실에서 일하는 형이 처음으로 멋있어보였죠. 그때부터 제게도 목표라는 게 생겼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형은 제가 바라는 ‘5년 뒤의 이상적인 내 모습’이에요, 언제나요.”

이제 당신의 꽃받침이 되어줄게요!

훌쩍 자란 두 아들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니는 어머니의 표정이 꽃처럼 환하다. 교단에서 내려와 사회봉사로 바쁜 일과를 이어가고 있는 어머니 이미향 씨는 오랜만의 가족여행에 누구보다도 신난 모습으로 조영수 주임을 뿌듯하게 했다. “어릴 때 장난기가 많아서 엄마가 사진 찍어주실 때마다 항상 양입고 짓궂은 표정을 짓곤 했어요. 얼마 전 엄마 휴대전화 배경화면이 그 개구쟁이 사진으로 설정된 걸 보고 후회도 되고 뭉클하



오랜만의 가족여행에 더없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마련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형! 모두 그저 건강만 해주세요!

더라고요. 결과보다는 과정, 물질보다는 가치를 추구하셨던 엄마의 철학은 제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바로 서는 힘이 되어주었어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살아오신 엄마 자식 일이라면 당신의 삶은 항상 뒷전이셨던 헌신적인 엄마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시간은 쌈살같이 흘러가 차곡차곡 추억이라는 퇴적층을 만들어낸다. 아직 하루가 끝난 게 아니다. 모처럼 갯벌 체험도 원 없이 해보고, 해가 지면 어시장에도 나가 싱싱한 회 맛도 만끽할 계획이다. 그 전에 우선,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햇살과 바람을 천천히 음미해야지! 철썩이는 파도 곁에서 귀를 조금 더 기울이고 엄마의 웃음소리를 들어본다. 가을볕 아래 눈을 좀 더 맞추고 할머니의 주름살을 바라본다. 지금, 여기의 행복을 미루지 않고 함께할 수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 순간, 조영수 주임의 마음이 좀 더 단단해졌는지도 모르겠다. ●

태안의 또 다른 매력 즐기기

꽃지해수욕장

5km의 광활한 백사장과 할배바위, 할매바위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광을 자랑한다. 썰물 맨 두 바위가 한 몸인 듯 모래톱으로 연결된다. 서해안 3대 낙조(落照)로 꼽히는 일몰도 장관으로, 해가 지기 시작하면 바닷가 주변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든다.



솔향기길

만대암에서 백화산까지 이어지는 총 5개 코스의 솔향기길은 피톤치드가 득한 솔향과 짭조름한 바다냄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도보 중심 길’이다. 해식동굴을 비롯해 SNS 명소로 알려진 용난굴(1코스), 구멍바위(2코스) 등 자연이 빚어낸 신비한 풍경을 연이어 볼 수 있다.



좋은 건 같이 봐요

분당사업소 운영부 운영1과 하덕현 주임

Audio



Book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가을에는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저런 이유로 여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진 애세이집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책의 제목처럼, 우리 좋은 건 같이 봐요!
Text 편집실 Voice 하덕현 주임 Photo 정우철

좋은 건 같이 봐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무슨 생각을 하며
사진을 찍는지요.
사진을 찍을 때면, 이 순간을 보여 주고 싶은
누군가를 생각해요.
좋아하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봐요.
서점에서 책을 읽다가 좋은 글귀를 마주했을 때,
혼자 카페에 앉아 맛있는 베이글 한 입 먹을 때,
굳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창문을
열어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사소한 순간에도 문득, 누군가를
떠올리곤 했어요.
(중간 생략)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누구나 일상에서 말하고
싶거나, 추억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저마다의
방법으로 기억하곤 하죠.
곁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 가볍게 오래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건 같이 봐요.



책 속으로

*듣는 서점은 한난 직원이
직접 책을 읽어주는
코너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하덕현
주임이 읽어주는
<좋은 건 같이 봐요>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난> 웹진에서도
듣기 가능합니다.



BOOK COMMENT

사진이 좋은 이유는 그때의 날씨, 온도, 습도, 기분, 감정…, 이 모든 게 담겨서 인 것 같습니다.
작가 엄지사진관은 일상의 아름다운 순간을 책에 담았어요. 글을 읽으며, 사진을 보며 작가의 이
야기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산 동료, 가족, 친구들도 이 책 한권으로 행복해
지기를 바랍니다.



아빠의 필름 카메라

한 개인의 성격 및 취향과 직업 따위는 하루아침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간이 쌓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점이 모여 선이 되듯, 하나하나의 과거가
모여 지금의 내가 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행과 사진이라는 취미도
마찬가지다. 아빠는 늘 필름 카메라로 나의 모습을
찍어 주었다.

(중간 생략)

오랜만에 장롱을 뒤지다가 굴러다니고 있는 아빠의
낡은 필름 카메라를 찾았다. 굉장히 독특한 외관에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기종, 웬지
세상에서 이 물건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 같은 특별한
기분이다. 아빠가 대학생 때 여자 친구를 꼬시기 위해
구입했다는데….

과연 엄마는 몇 번째로 찍혔을까.

(중간 생략)

수리를 위해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수리를 맡기니
아저씨가 말한다.

“필름 카메라 만 원도 안 할 텐데, 하나 사요.”

“아버지의 추억은 만 원으로 살 수 없어요.”

그날 나는 남대문 시장을 걸으며 골목의 모습을
담았다. 평소에는 후다닥 먹었을 점심도 느긋하게
먹었다. 느릿느릿해지는 걸음이 몸이 무거워졌기
때문인지, 마음의 여유 때문인지 모르겠다. 투박한 이
셔터 소리가 너무 좋다. 일상에 맞서는 이 여유가 참
좋다. 이 기분을 만끽하는데 전화가 울린다. 회사다.
“화장실 갔니?” “저 오후 반차인데요…….”

눈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눈이 보내는 신호로 파악하는 건강!

지겹던 더위가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니 가을은 가을은 날씨도 좋고, 계절도 아름다운 이때, 좋은 것들을 눈에 담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진다. 이 아름다운 것들을 눈에 담으려면 눈이 건강해야하는데 온종일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시달린 우리의 눈은 건강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현실. 아직 늦지 않았다. 눈이 보내는 신호를 살펴보고 건강을 지켜보자.

Text 최선주



“눈이 왜 이렇게 빨간 거죠?”

충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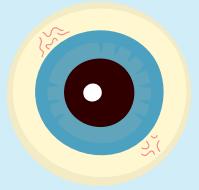
“눈동자 주위가 하얘요!”

하얀색 띠



“흰자위에 붉은 점은 뭐죠?”

붉은 점



“눈이 노래요”

황달



“몸보다 눈이 피곤해요”

눈의 피로



“눈이 번쩍여요!”

섬광

살면서 눈 충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눈 충혈의 원인은 다양한데 대부분이 눈에 세균이 침투했기 때문이다. 특히 렌즈를 끼거나, 눈 화장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눈 충혈을 자주 겪게 되는데 이는 화장품 성분이 눈에 맞지 않거나 오래된 화장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아깝다고 화장품을 오래오래 사용하지 말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과감히 버리기 바란다. 내 눈 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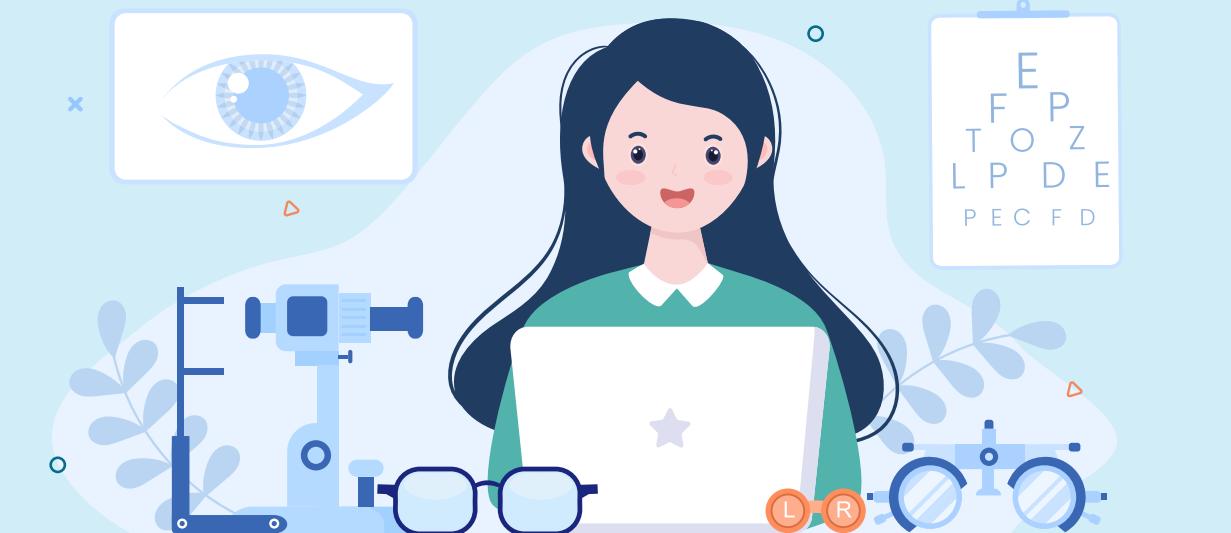
눈 각막 주변에 하얀색 테두리가 있다면, 노인 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 노인환이라면, 각막 가장자리에 생기는 고리 모양의 혼탁. 일종의 노화현상이다. 또한, 하얀 테두리는 각막에 지방이 축적돼 생기는 것인데 혈액의 지방 수치가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비슷한 증상으로 눈꺼풀에 하얀 알갱이가 보이는 것도 혈액 내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신호다.

우연히 눈을 보다가 흰자위에 붉은 점이 생긴 걸 발견했다면? 혈압을 의심해 보자. 붉은 점은 위험한 증상은 아니지만, 붉은 점이 흰자위에 오래 머물러 있다면 이는 혈압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혈압이 높으면 눈의 모세혈관이 확장되거나 터지면서 붉은색 점으로 나타난다. 꽤 오랫동안 눈의 붉은 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병원으로 가보자.

눈이 노랗다면 황달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황달 증상은 눈뿐만 아니라 손, 발, 소변의 상태로도 알아차릴 수 있는데 이는 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황달이 생기면 경우에 따라 피부 가려움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황달은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에 따라 식이요법이 달라지지만, 보통은 저지방 식단을 하는 것이 좋다. 황달이 오면 담즙분비의 장애로 인해 지방 소화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 피곤한 것처럼, 눈도 피곤함을 느낀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전자기기는 눈의 피곤함을 배가시키는 존재다. 하지만, 앉을 수도 없는 노릇. 눈의 피로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전자기기를 똑바로 써보는 건 어떨까. 조명의 밝기를 내 눈 상태에 맞게 맞춘다거나, 업무 중간마다 눈 마사지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

순간적으로 강렬하게 번쩍이는 빛을 섬광이라고 한다. 이 섬광이 눈에 비치거나 점이 떠 다니면 편두통이 있다는 신호다. 편두통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두통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물을 많이 마시고 어둡고 조용한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 단, 섬광이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호전되지 않는다면 자체하지 말고 안과로 가야 한다. 심각한 안과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골목길의 흥미로운 진화 전국 '리단길' 모음 [.zip](#)

지금 우리는 골목길에 주목한다. 오래된 골목이 맛집과 멋집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입으면서 '리단길'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2015년 이태원에 형성된 경리단길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특색과 개성을 갖춘 골목길이 '○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중. 리단길은 변화가와 달리

아기자기하고 소박한 감성이 곳곳에 녹아든 것이 특징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핫플레이스와 성지로 떠오르며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골목길의 새로운 발견, 전국의 리단길을 소개한다.

Text 김주희 Photo 정우철, 각 지자체



한 폭의 그림 같은 성곽을 품다

수원사업소 인근

수원 행리단길

수원 행리단길은 수원 화성과 화성 행궁을 품은 행궁동 일원에 걸쳐 드넓게 형성된 곳이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성곽 뷰와 레트로 감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인데,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가 아니라 마치 동네에 자연스럽게 스민 듯한 풍경이 특징이다. 낡고 오래된 골목을 걸으면서 어쩌다 전통 한옥을 마주친 후 두어 걸음 걸으면 일순 감성적이고 트렌디한 습들을 만나게 된다. 구옥을 개조한 카페나 맛집들이 모여 있어 대충 찍어도 SNS 감성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 스폽이 가득하다. 화성행궁 근처에는 함께 들려볼 명소들이 많다. 전국 행궁 중 인상적인 규모와 격식을 갖춘 화성행궁은 정조의 원대한 꿈과 효심이 느껴지는 역사적 명소로 온 가족이 함께하기에도 좋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서양화가인 나혜석의 생가터에서는 벽에 나혜석 작품을 그린 골목길을 거닐 수 있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43

바다는 덤, 기찻길 옆 낭만 산책

양산지사 인근

부산 해리단길

해리단길은 부산 해운대역 뒤쪽 일대에 만들어진 곳이다. 폐역이 된 옛 해운대역 뒷골목이 조금씩 단장되면서 활기를 되찾은 도시재생 케이스이기도 하다. 해리단길에 즐비한 상점들은 오래된 주택을 개조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통해 특색을 담아내는 동시에 골목길 특유의 소박한 분위기를 살렸다. 이국적인 레스토랑부터 로맨틱한 루프톱 카페, 트렌디한 바거 습과 디저트 습을 비롯해 소품 습, 사진관, 꽃가게, 서점, 빈티지 의류 습 등이 주택과 조화롭게 모여 있다. MZ 세대부터 주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골목을 지키고 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풍경은 동네 이웃 모두가 어울리던 '골목'이라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주말에는 다른 지역에서 모여든 상인들이 폴리마켓을 열기도 하고,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벽화로 눈길을 끌기도 한다.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510-7



지역과 콘텐츠의 창의적인 연대
광주전남지사 인근

광주 봉리단길

숲길과 오붓한 골목, 카페거리가 공존하는 동네다. 인근에 있던 옛 전 남도청이 이전하며 활기를 잃었다가 다시 생명력을 얻었다. 마을을 에워싼 푸른 숲길부터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카페와 책방, 갤러리, 근현대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골목까지 조붓하게 자리한다. 주목할 점은 봉리단길의 생명력을 잇는 이들이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라는 점이다. 누구보다 동명동만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젊은 창작가들이 지역의 고유성과 자신만의 콘텐츠를 결합해 특별한 공간과 콘텐츠를 만들어냈다. 프렌치 코스 요리로 유명한 레스토랑은 지역의 식자재를 활용한 신선하고 수준 높은 메뉴를 선보인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주인장이 광주 지역의 밀로 만든 수제맥주를 선보이기도 한다. 수십 년의 세월을 간직한 한옥을 개조해 지역 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갤러리들도 동명동을 대표하는 명소로 손꼽힌다.

📍 광주시 동구 동명동 292



이국적인 정취를 한데 모은 오묘한 풍경
강남지사 인근

서울 송리단길

석촌호수 동호 인근을 일컫는 송리단길은 약 400m 거리에 이른다. 일반 주택가였지만 롯데월드타워가 오픈한 이후 많은 사람이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길이다. 주택가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은 골목을 탐험하듯 누비는 재미가 꽤 쓸쓸하다. 식당, 카페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데, 무엇보다 다양한 취향과 입맛을 충족시켜주는 맛집이 즐비한 점이 매력적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먹거리를 현지 분위기로 즐길 수 있는 곳이 많다. 로맨틱한 프랑스식 카페, 빈티지 감성의 유럽풍 카페, 소박한 일본식 밥집, 현지의 맛을 고스란히 살린 베트남 레스토랑, 이국적인 퓨전요리 집, 세련된 아메리칸 펍, 유러피언 인테리어의 와인 바 등 각국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맛집들이 투어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송리단길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열린’ 공간이라는 점이다. 낮은 건물들 사이로 내려앉은 햇볕을 누릴 수 있다.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3길 23



MZ세대의 힙한 놀이터

중앙지사 인근 서울 망리단길

서울 서부권의 가장 핫한 동네는 단연 망원동이 아닐까. 망리단길이라고 불리는 골목길은 MZ세대의 힙한 놀이터로 자리매김했다. 끊임없이 새로운 상점들이 생겨나면서 상권은 더욱 확대되는 중이다. 망리단길을 진정으로 즐기는 방법은 골목 ‘사이사이’를 ‘낱낱이’ 누비는 것이다. 모세혈관처럼 이어진 길마다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SNS 감성 가득한 독특한 콘셉트의 카페들은 ‘인싸’들의 성지가 되었다. 망리단길에서 달콤한 디저트 투어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터. 티라미수, 젤라토, 빙수 등 소규모 디저트 숍이 즐비하는데, 차별화된 레시피와 눈을 즐겁게 하는 패키지 디자인으로 눈길을 끈다. 망리단길을 충분히 즐겼다면 인근 망원시장을 돌아봐도 좋다. 재래시장의 정겨운 풍경과 묘미도 색다른 즐거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03-7

아날로그 감성과 추억이 어린 길목

대구지사 인근

대구 봉리단길

대구 대봉동에 위치한 봉리단길은 제2의 동성로라고 불리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대봉동을 거닐다 보면 시선을 볼드는 맛집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날로그 감성 가득한 고깃집, 홍콩의 낡은 골목 어딘가에서 볼 법한 중식당, 모던한 분위기로 재해석한 이자카야, 인심 좋은 주인장이 운영하는 족발집 등이 자리한다.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상점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 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다 보면 시간이 어느새 훌쩍 지나가 있다. 가성비 넘치는 카페 외에도 유명 프랜차이즈도 자리해 익숙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 400m 거리 곳곳에故김광석의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운치를 더해준다. 벽에는 그와 관련된 벽화가 가득하다.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벽화인 터라 추억 사진을 남기기에 제격이다. ❤️

📍 대구시 중구 대봉동 122-2



매력만점 요리
팽이버섯 새우전



식감이 훌륭한 팽이버섯과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제철 새우가 만났다. 이름하여 팽이버섯 새우전!
편식이 심한 우리 아이도, 입맛을 잃은 친구도, 도시락 반찬이 고민되는 직장인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메뉴다.
예쁘게 모양 잡고, 지글지글 구워서 밥상 위에 올려보자. ❤

Text 최선주 Photo 정우철 Food Styling 박정윤(노하우스 스튜디오 knowhow's studio)

재료 및 용량

새우 8개, 팽이버섯 1봉지,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대파 1/3대, 계란 2개, 소금, 후추
간장 양념 간장 2t, 설탕 1t, 마늘 1t, 고춧가루 1t, 쪽파, 깨

Recipe

- 1 —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한다.
- 2 — 팽이버섯, 대파, 청고추, 홍고추는 잘게 썬다.
- 3 — 계란을 풀고 2의 썰어둔 야채를 넣고 소금, 후추간을 해준다.
- 4 — 팬에 기름을 두르고 3의 반죽을 한 입 크기로 올려준다.
- 5 — 4 위에 새우를 하나씩 올려 앞뒤로 구워 완성한다.
- 6 — 간장 양념을 섞어 전과 함께 완성한다.



Recipe tip

조금 더 먹기 좋은 팽이버섯
새우전을 원한다면 새우는
다져서 반죽과 함께 섞어주세요.
반죽에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따로 간장
양념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썼다 가자 웠다 가

캘리그래피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가을 탄다'라는 말이 있다. 가을만 되면 괜히 분위기를 타고,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인 사람들이 늘어나서 생긴 말이다. 혹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바람 끝도 제법 차가워져 가을 타는 누군가가 있다면, 재미있는 캘리그래피 아크릴 무드등을 만들어보는 걸 추천한다. 쑥쑥 썼다가, 지웠다가 하는 동안 잡생각이 사라질 것이다. 그뿐인가?! 완성하고 나서 등을 켜면 순식간에 집안이 온통 감성으로 물드는 광경을 볼 수도 있다.

Text 최선주 Photo 정우철



천차만별 무드등의 세계

멋이나 분위기를 내기 위해 켜는 등을 '무드등'이라고 부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꾸미기, 일명 '집꾸'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무드등을 이용해서 남부럽지 않은 인테리어를 자랑하기도 한다.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진 만큼, 시중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무드등이 판매되고 있다. 가습기 기능이 탑재된 무드등부터 보조배터리 무드등, 캔들 무드등까지 디자인에 기능까지 더해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특히 날씨가 청명한 가을에는 캠핑하기 좋아서, '낭만 캠핑템'으로 무드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손으로 감성을 커자

온·오프라인 상에는 당장이라도 구매를 하고 싶은 무드등이 많지만, 올가을 특별한 무드등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나만의 특별한 문구를 만들 수도 있고, 재미있는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그런 무드등 말이다. '캘리그래피 아크릴 무드등 키트'는 특별함에 재미까지 더한 무드등 만들기 세트. 도안과 캘리그래피 연습 책자가 있어서 악필도 명필이 되게 하는 마법을 선사한다. 연습 책자를 가지고 충분히 글씨 연습을 한 뒤, 키트에 함께 들어 있는 아크릴판에 손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 완성!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완성은 보통 30분 내외면 가능하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문구를 적어 선물하기에 좋다. 물론 감성적인 가을의 나를 위한 선물로도 안성맞춤이다. ❤

무드등 만들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양산지사 토건부
최찬용 차장

평소에 만들기를 좋아하는 둘째 아이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어떤 글씨를 쓸지 고민해가며 정성스럽게 만든 무드등입니다. 덕분에 저녁 분위기가 무드 있어졌네요.



광교지사 고객지원부
이문경 차장

가족과 함께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정성껏 적어보았습니다. 한난가족 여러분들, "수고했어, 오늘도!"



경영지원처 인재육성부
김윤희 대리

첫째 딸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완전 취향 저격이었어요! 저는 골라주기만 하고, 아이 혼자 다 만들었네요. 언제든 다시 지우고 또 만들 수 있어 재미있습니다.

KDHC NEWS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요 소식
SEP+OCT 2022

01

한국 ESG혁신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9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 마련된 한국정책학회 주관 '제1회 한국 ESG혁신정책대상'에서 '사회(Social)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난은 ESG 경영 체계를 마련하여 ESG위원회 신설, 공기업 최초 ESG 성과측정 모델 개발, ESG 경영전략 수립, 공공 포럼을 통한 ESG 우수사례 공유 등 ESG 경영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난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국내 최초 열에너지 제품군에 대한 '저탄소 제품' 인증 등 환경적 성과 이외에도 ESG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속 가능 보고서 공개를 확대하는 등 정보공시를 강화했다.

특히 이번 수상에서는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스마트팜 일터인 '푸르메여주팜 사업'이 ESG 사회 분야 우수사례로 평가되었다. 민관공 협업을 통해 8개 기관이 함께 질 좋은 고용과 지역 상생을 실현하고 있는 푸르메여주팜 사업은 국내 1호로 만들어진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역상생 실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02

경영진 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영진 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황창화 한난 사장은 9월 6일 파주지사를 방문해 호우·태풍에 의한 안전 취약지점 관리 상태 유지 보수 및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실태 등 재난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한난 경영진은 동탄지사(부사장), 광주전남지사(운영본부장), 삼송지사(안전기술본부장), 청주지사 및 세종지사(건설본부장) 등 전국 주요 사업장을 순회하며, 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다.

한편, 한난은 지난 8월부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옥외전광판, 온라인 SNS 채널 등을 활용해 대국민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범국가적 민·관 합동 안전점검('국가안전대전단'의 새로운 명칭)

03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일하고 공존하는 푸르메소셜팜·여주팜 그랜드 오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9월 1일 국내 최초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푸르메여주팜' 및 베이커리 카페 '무이숲' 등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종합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푸르메여주팜'은 한난, 여주시, 푸르메소셜팜이 공동으로 출자해 2020년 9월에 설립된 국내 1호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현재 발달 장애 청년 39명이 태양광 등 신재생 융복합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에서 토마토, 버섯을 재배하고 있고 향후 2025년 까지 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 67명을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열린 베이커리 카페 '무이숲'에서는 발달 장애인 직원 7명이 직무교육을 통해 각자 적성과 능력에 따라 카페와 베이커리 부문에서 근무 중이며, 푸르메여주팜에서 재배한 토마토를 재료로한 특색있는 메뉴도 선보일 예정이다.

'다르지 않다(無異)'는 의미의 '무이숲'은 장애, 성별, 나이, 인종 등과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를 담은 브랜드로서, 발달 장애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기회를 넓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04

2022년 지진안전주간 안전캠페인 실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진 피해 최소화 및 지진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2022년 지진안전주간 대국민 안전캠페인'을 지난 9월 14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진안전주간은 국내 최대 규모였던 2016년 9월 경주 지진(규모 5.8)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9월 진행되며, 올해는 9월 12일부터 9월 18일에 실시했다.

한난은 매년 지진안전주간에 지진(해일)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 지진 발생 대비 우리집 체크리스트, 우리 동네 지진(해일) 대피장소 등을 한난 SNS(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와 옥외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해 왔다.

올해는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담아 부사장을 포함한 안전 담당 부서 전 직원이 가두 캠페인을 실시해 지진 안전 리플릿 등을 배포했다.

한난 관계자는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으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지진 대비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KDHC NEWS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요 소식
SEP+OCT 2022

05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은총이와 함께하는 히어로(Hero) 레이스’ 개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제구호개발 단체인 굿피플과 함께 희귀·난치병 어린이 치료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은총이와 함께하는 히어로 레이스’를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한난과 굿피플이 함께 추진하는 사회공헌 행사로 참여하는 누구나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대회 참가비 전액은 희귀·난치병 어린이 치료비로 기부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언택트) 2가지 대회를 병행했다. 오프라인 대회는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5km, 10km 중 선택해 9월 24일 여의도 일대에서 함께 달렸으며, 온라인 대회는 2km, 5km, 10km, 21km 중 선택해 대회 기간 중 원하는 장소 및 시간에 참여하는 버츄얼 레이스로 진행되었다.

대회에 함께하는 ‘은총이’는 6가지 희귀 난치병을 가지고 태어나 생후 6개월 만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극복하고 성인까지 성장하는 기적을 선보여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또한 착한 기부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가수 션이 대회 홍보대사로 참여하고 있다. 🎤

06

ESG 혁신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 ‘함께, 한난’ 개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공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국민 소통을 통해 ESG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자 10월 21일(금)까지 약 4주간 대국민 공모전 ‘함께, 한난’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생각을 청취하는 아이디어 분야와 탄소중립과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회공헌사업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아이디어 분야는 친환경 경영,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된 ‘E(환경)’, 민간 혁신 및 ESG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관련된 ‘S(사회)’, 공직문화 개선, 적극행정, 규제혁파 등과 관련된 ‘G(지배구조)’ 총 3개의 주제로,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공모할 수 있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향후 한난의 국민 참여 혁신과제로 활용되며, 14건을 선정해 총 77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사회공헌사업 분야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공모해 2건 이내 사업을 선정,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및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한난 홈페이지(www.kdhc.co.kr), 이메일(suggest@kdhc.co.kr),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한난 고유 업무와의 연계성 및 아이디어의 혁신성, 효과성, 파급성을 중심으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와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알록달록 단풍 구경 전에 한난 SNS 구경하실래요?

한난과 함께하는 2022 파크콘서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성남문화재단이 함께하는 파크콘서트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푸른 공원 한가운데에서 맑은 공

기,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낭만적인 풍경, 함께 보실래요?



www.youtube.com/kdhcmmedia



바람이 제법 선선해지고, 나뭇잎들이 붉은 옷으로 갈아입은 걸 보니 가을이 되었네요. 만약 당신도 일상에 지쳤다면 단풍 구경 어떠세요? 단풍 구경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SNS에 접속해 알찬 정보도 쟁기시면 일석이조랍니다.

신기한 땀의 힘! 인체 과학 이야기

사람은 몇 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 한번쯤 갖지 않으셨나요? 고온의 사우나에서 오래 있어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습도가 왜 중요한지, 효과적인 방열수단은 무엇인지 한난 블로그에서 인체 과학의 비밀을 풀어봤습니다.



blog.naver.com/kdhc2017



비건 화장품 써 보실래요?

동물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는 비건! MZ세대 사이에서는 이젠 화장품도 비건 제품인지를 고려해서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비건에 대한 정의부터 비건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까지 정보를 한데 모았습니다.



www.facebook.com/FKDHC



해외여행 가능할까? 입국 가능국가 알아보기

코로나19 이후 불가능했던 해외여행. 이전 슬슬 방역이 완화되면서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늘고 있는데요. 어서 마음 편히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이 오길 바라며 현재 입국 가능한 나라를 살펴봤습니다. 🎪



www.instagram.com/kdhc_on



2022년 7+8월호
독자 의견을 소개합니다

우*형 님

'에너지는 지금'을 읽고 그간 인류가 편리와 풍요로움만 추구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구 생태계와 환경이 오염 및 훼손되어 더 이상 방치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CCUS 기술로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①

이*우 님

전에 한국화가 김현정의 명작을 다른 매체에서 본 기억이 있었어요. 그 후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는데, <따뜻·한 난>에서 보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명작으로 눈과 마음이 힐링 되었고, 저의 미술 식견이 넓어졌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명작을 볼 수 있게 해준 <따뜻·한난> 고맙습니다. 이 것을 계기로 좋은 그림을 보면, 저장해 두는 게 저의 기쁨이 되었네요.

②

한*련 님

'여기서 행복' 코너의 '사랑하는 이와 함께 차박차박'이 좋았습니다.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휴가나 여행을 떠나고 싶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자연을 벗삼아 해수욕도 하고, 밥도 해먹고, 밤하늘의 별도 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대리만족하는 기분으로 읽었어요.

③

이*길 님

'따소미와 ESG 하루' 칼럼을 통해 한난이 꿈꾸는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생생히 느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혼자만의 발전이 아닌 소외된 이웃 모두와 함께하는 한난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믿음직한 한난, 파이팅입니다!

④

독자와 함께하는 2022 <따뜻·한난> 이벤트

EVENT 하나 생각 적기

'생각한 난'에 참여해 생각 적기



**11+12월호 주제

'내 열정이 뜨겁게 불타올랐던 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 <따뜻·한난> 웹진을 통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데이터랩'에 설문 참여하기

*11+12월호 주제

'후회 없이 뜨거운 사랑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대상을 말해주세요'

⇒ <따뜻·한난> 웹진을 통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EVENT 둘

웹진에서 따소미 찾기

웹진에서 따소미 찾기!

한복 입은 따소미 찾기! 웹진

페이지마다 한복 입은 따소미가 숨어있어요. 꼭꼭 숨은 따소미를 찾아주세요.



선물 문화상품권 1만 원권

EVENT 셋 독자 의견

<따뜻·한난> 읽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았던 기사, 소개되었으면

하는 내용 등 <따뜻·한난>을

읽고 의견 남겨주세요.



모든 이벤트는
<따뜻·한난>
웹진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